한국고전연구 21집/한국고전연구학회/2010/145-168쪽

『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중반의 날씨 기록과 표현

이연순*

<차 례>

1. 서론
2. 미암의 날씨 기록과 표현
 1) 백성에 대한 관심
  (1) 民生 문제의 걱정
  (2) '立春裸耕'의 풍속 비판
 2) 국가의 대응과 해석
  (1) 儀禮와 制度的 대응
  (2) 天人感應에 따른 해석과 표현
3. 의의와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6세기 중반 眉巖 柳希春이 남긴 『미암일기』를 대상으로 이에 나타난 날씨 관련 기록 양상과 날씨를 통한 표현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시 날씨 변화는 民生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한편 정치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날씨 변화는 풍수해와 가뭄, 蝗蟲의 재앙 등 여러 자연 재해를 동반하였고, 이 때마다 민생 문제 곧 기본적으로 衣食住 생활과 농업형태, 그리고 풍속의 형성과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국가에서는 가뭄이나 홍수가 계속 될 경우 祈雨祭나 祈請祭 등 氣候儀禮를 대대적으로 치러 흉년에 대비하였다. 또한 민생의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軍籍을 정지하거나 사치 방지 등을 조장해 제도적으로 백성의 구제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당시 날씨의 급격한 변화는 정치적으로 해석돼, 선조 즉위년인 1567년 우레의 變이 심한 것을 계기로 을사사화에 被禍되었던 인물들을 정계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있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www.kci.go.kr

던 성리학적 인식론에 기반을 둔 '天人感應'의 이론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미암 또한 천인감응에 따른 날씨 해석으로 자신의 감회를 표현하거나, 또는 순수하게 날씨 변화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소회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날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던 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여느 일기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표현이다.

이처럼 미암이 일기에 날씨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국가와 백성,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놓아, 16세기 중반 일기문학을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가 愛民意識을 드러내고 한편으로 자신의 감회를 표출한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준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발견된다.

주제어 『眉巖日記』, 柳希春, 날씨, 民生, 祈雨祭

1. 서론

본고는 16세기 일기문학인 眉巖 柳希春의 『眉巖日記』에 나타난 날씨 기록과 그 표현의 특징 및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암 유희춘이 해배 후 조정에서 벼슬하며 10년 간 기록한 『미암일기』에는 매일의 날씨가 충실히 기록되어 있다.

날씨를 기록하는 것은 일기에 날짜를 적는 것과 함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형식적 요소이다. 『미암일기』에는 매일의 날씨가 맑음(晴), 또는 흐림(陰), 비(雨)와 같이 간단히 적혀 있거나, 때로 날씨 변화를 관찰해 '어젯밤부터 비가 크게 내렸다'[1]라든가, '비가 내리다 다시 그쳤다'[2]와 같이 상세히 밝혀져 있다. 미암은 또한 단순한 기록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날씨에 따른 감회를 일기에 표현해놓은 경우도 있는데, '흰 눈이 땅에 가

1) 유희춘, 『미암일기초』, 제3책, 1569 기사년, 5.25, 自去夜雨大下
2) 유희춘, 『미암일기초』, 제1책, 1568 무진년, 2.27, 雨而還止

www.kci.go.kr

득하니 겨울 들어서 처음 보았다.'[3]와 같은 예가 그것이다.

『미암일기』는 미암 유희춘이 을사사화로 유배를 다녀온 후 해배 되던 해인 1567년부터 1577년까지 10년간을 기록한 일기로, 임진왜란 이후 소실된 역사 자료를 대신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4] 또한 하루의 일과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당대 사대부의 일상사를 복원하는 데도 큰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미암은 1513년 호남에서 출생하여 정계에 진출한 대표적 인물로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호남 지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록을 많이 남겼다. 그뿐만 아니라 미암은 을사사화로 인해 함경도 종성에 귀양 가 1549년부터 1567년까지 19년간을 지내면서 북방지역의 풍속과 백성의 삶에 대한 관심을 피력한 글을 남겼고, 해배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일화를 일기에 기록하였다. 또한 해배 후 조정에서 10년간 관직생활을 하며 한양의 날씨에 대한 기록도 매일 일기에 충실히 남겼고, 특별히 재해가 심한 경우에는 자신과 신하들이 조정에 상소한 내용을 고스란히 실어놓았다.

따라서 이 『미암일기』를 대상으로 당시 생활상을 파악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기후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연구 성과가 나와 있다. 김연옥이 『미암일기』를 토대로 일기가 쓰여 진 1567년부터 1577년까지의 기상일표를 만들어 계절별, 월별로 특색을 고찰하고 天候型의 특색을 밝힌 연구가 그것이다.[5] 이는 본격적인 '기후' 연구의 하나로서, 천후와 기후요소, 그리고 각 년의 특색을 밝혀, 16세기 중반 당시의 날씨 상태

3) 유희춘, 『미암일기초』, 제1책, 1567 정묘년, 12.21, 白雪滿地 冬之初見也

4) 송재용, 「『미암일기』의 서지와 사료적 가치」, 『퇴계학연구』제12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8, pp.117-118.

5) 김연옥, 「古日記에 의한 古氣候 연구-『미암일기』를 중심으로」, 『논총』 제58집, 이화여자대학교 韓國文化硏究院, 1990.

www.kci.go.kr

를 정확히 고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본고의 날씨와는 달리 기후를 다룬 것으로, 논의의 범주가 다르다.[6]

이에 본고에서는 미암이 날씨와 관련해 기록을 남긴 『미암집』과 『미암일기』[7]을 대상으로, 백성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 그리고 조정에서 활동하며 날씨에 변화에 대응한 방식들의 내용들을 세분하여 살펴보겠다. 또한 여느 일기에서는 보기 힘든 특징적인 경우로, 미암이 날씨를 통해 느낌과 소회를 표현한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8] 이를 통해 당시 날씨에 따라 발생한 민생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고자 한 국가적 대응과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한 天人感應에 의한 해석, 그리고 미암 자신의 삶에까지 적용하여 표현한 부분 등에서 문학적 의의를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6) 여기서 '기후'에 강조 표시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리학에서 날씨와 기후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기후는 기상과 구분하여 쓰는데, 기상과 기후는 모두 大氣 현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상은 '춥다', '덥다', '비', '구름' 등 대기 현상의 종합을 말하며 쉽게 날씨나 日氣 등으로 표현하고, 시간의 경과로는 2-3일의 변화라면, 기후는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출현할 확률이 가장 높은 기상의 종합 상태로 장기간에 걸친 기상의 평균 상태를 말한다. 이상 김연옥, 『기후 변화』, 민음사, 1998, p.13 참조. 곧 날씨는 기상에 속하는 것으로 기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일의 날씨 기록을 주된 대상으로 살펴보는 본고에서는 '날씨' 또는 '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단, 조정에서의 대응방식 가운데는 간혹 기후 개념의 기록을 다루는 경우도 있어 이때는 예외로 한다.

7) 유희춘, 『眉巖集』, 한국문집총간 34권, 민족문화추진회, 1989. 『眉巖日記草』1~5권, 조선총독부 한국사편수회, 1936. 본문 번역문은 국역 『미암일기』1~5집, 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2~1996을 참고하였다. 이하 본문에서는 저자명을 생략하고 서명만을 구분하여 쓰을 밝힌다.

8) 이에 대해서는 졸고, 『미암 유희춘의 일기문학 연구』(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9)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좀더 심화하고 자료를 보충하여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www.kci.go.kr

2. 미암의 날씨 기록과 표현

1) 백성에 대한 관심

(1) 民生 문제의 걱정

16세기 중반 당시 날씨는 民生에 밀접한 영향을 끼쳤다. 미암은 평상시에도 날씨가 농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일기에 기록을 남겼다. “종일토록 비가 내려 농가가 크게 기뻐한다.”[9]거나, “이달에 京外가 크게 가물어, 백성이 근심하고 원통해한다.”[10]고 하고, “들으니 호남에 이번 달 구일에 큰 비가 내려 높고 건조한 수전에 모두 부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니, 금년의 풍년은 틀림없을 것이다. 영남도 그러하다고 한다.[11]”고 하여, 날씨를 살피며 농가를 걱정하고 풍년을 예상하였다. 그런데 1570년 8월의 “外方에 風水의 재해가 많아 흉년이 들어 民生이 걱정스럽다”고 한 기록에서는 날씨가 자연 재해로 이어져 생기는 민생의 문제에 걱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12]

날씨는 의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날씨 변동에 따라 의복을 착용한 기록도 남겼다. 1569(기사)년 8월 霜降에는 우박이 내려 바람기가 추워지자 사람들이 솜옷을 겹쳐 입었다[13]는 기록이 보인다.

날씨가 농사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을 살펴보겠다. 1570년 7월 초 비가 전라 경상 이도에 충분히 내려 농사가 잘 되었

9) 『미암일기초』, 제8책, 1573 계유년, 12.15, 終日雨下 農家大喜

10) 『미암일기초』, 제10책, 1576 병자년, 4.29, 是月 京外大旱 人民之憂悶罔涯

11) 『미암일기초』, 제1책, 1568 무진년, 4.22, 聞湖南今月初九日大雨 高燥水田 皆得付種 今年之稔必矣 嶺南亦然

12) 『미암일기초』, 제5책, 1570 경오년, 8.8, 是時 外方多風水之災 今年爲歉 民生可慮

13) 『미암일기초』, 제3책, 1569 기사년, 8.28, 去去夜霜降 去也又雹下 故今日風氣凄冷 人皆添綿衣

www.kci.go.kr

고, 경기도만 큰 비가 내려 벼와 곡식이 손상된 것으로 기록하였다.[14] 그러나 중순에 이르면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물이 범람해 재해가 되어 백성들이 괴로워할 지경에 이르렀다.[15] 잠시 비가 그치고 맑아졌으나[16] 이때 내린 비의 피해는 매우 커서 실록에도 기록이 실려 있다. 영남의 서남 지역에 내린 폭우에 벼가 손상되고 민가가 뒤집혔으며, 경기 지방에도 풍우가 내려 벼 곡물이 쓰러져 추수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17] 이에 미암은 다음날 경기감사의 보고를 직접 보고 水災가 커 광주, 삼전도 등의 지방이 참혹하다[18]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에 내린 엄청난 비가 재해가 되어 내가 뒤집히고 제방이 흘러넘친 곳이 아주 많아 백성들의 먹을 것이 크게 군색하게 되었음을 걱정하였다.[19]

이처럼 미암은 당시 민생에 대한 지극한 관심에서 날씨 변화가 자연 재해를 동반하여 농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며 민생에 영향을 준 사례를 낱낱이 기록하여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2) '立春裸耕'의 풍속 비판

미암은 해배 후의 날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유배지 종성의 날씨와 풍

14) 『미암일기초』, 제5책, 1570 경오년, 7.6, 全羅慶尙二道 雨水周足 農事向遂 京畿去六月二十八日九日 連日大雨 禾穀損傷 成川浦落 覆沙處甚多云

15) 『미암일기초』, 제5책, 1570 경오년, 7.17, 自去夜大雨 是時 水漲爲災 民反苦之

16) 『미암일기초』, 제5책, 1570 경오년, 7.18, 至巳雨止 午時快霽 輿情大喜

17) 『미암일기초』, 제5책, 1570 경오년, 7.20, 嶺南之西南十三官 今七月初六日初七日風雨大作 禾穀盡爲損傷 屋瓦皆飛 民家顚覆 樹木折發 至爲慘酷 京畿亦如是 兩日風雨大作 禾穀偃仆 樹木折落 京畿 仁川 陽川 十三四日雨水大作 大水漲溢 田野沈沒 / 『선조실록』, 같은 날

18) 『미암일기초』, 제5책, 1570 경오년, 7.21, 見京畿監司所啓 聞水災甚重 廣州三田渡等處 尤慘云

19) 『미암일기초』, 제5책, 1570 경오년, 7.28, 是時 陰雨爲災 川翻浦落處頗多 民食大窘云

www.kci.go.kr

속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이 미암은 북방 지역인 종성에서 귀양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접하며 '立春裸耕'이라는 풍속을 목도하고 議論을 개진한 바 있다.[20] 이는 북방 지역 기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백성들 사이에서 잘못 행해지고 있는 풍속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 후 미암은 귀양지에서 돌아온 다음까지 그 사실을 기억하였다가 그와 관련한 일화를 일기에 기록하였다.

> 북쪽 시골의 무지한 풍속에, 立春일마다 장정에게 발가벗고 木牛를 몰게 하는데, 이를 '裸耕'이라 한다. 이를 따르다 한기를 맞아 큰 병이 되는 데 이른다. 감사도 엄히 금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監司 朴啓賢의 아버지인 參贊 朴忠元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답하기를 "저러한 북쪽의 풍속은 지극히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고, 게다가 사람을 상하게 하니 몹시 놀랍고 괴이쩍습니다. 마땅히 엄금할 큰 계책을 통유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21]

앞에서는 입춘나경의 풍속, 곧 입춘에 발가벗고 목우를 모는 행위인 나경에 대해 소개한 후, 이로 인해 사람들이 한기를 맞아 병이 드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어서 함경감사 박계현의 부친인 박충원에게 편지를 보내 북쪽의 나경이라는 입춘의 풍속에 대해 그 폐단을 지적하고 금할 것을 알린 정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뒤에 박충헌의 답장을 실어 동의하는 뜻을 얻어 보였다.

이 입춘나경의 풍속은 후대에 나온 『동국세시기』에 중국의 '土牛之制'를 본뜬 것이라 밝혀져 있다. 漢族의 '土牛之制'는 『禮記』「月令」과 『東

20) 『眉巖集』권3, <立春裸耕議>

21) 『미암일기초』, 제8책, 1573 계유년, 12.15, 以北鄙無知之俗 每於立春日 令丁壯赤脫驅木牛 謂之裸耕 馴致中寒 成大病 監司亦可嚴禁 通簡于朴監司啓賢之父參贊忠元 答曰 北俗如彼 至爲無理 且傷人 深可駭怪 當通諭嚴禁大計云云

www.kci.go.kr

京夢華錄』에 의하면, 迎春의 자리에서 人造牛인 春牛가 祭祀하던 민속이다. 한족의 토우나 춘우는 우리의 목우와 일철이라 하였다. 이러한 농경의식은 官에 의해 의식적으로 진행되어 淸代에는 입춘을 앞두고 荒神土牛를 만들어 입춘날 長官, 儒師, 耆老를 거느리고 東郊에서 봄을 맞으며 토우를 화편으로 채찍질해 耕作하는 모양을 하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족의 민속을 일찍이 받아들여 고려시대 성종대에 입춘토우의 행사가 조정의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이 '出土牛' 행사의 목적은 李陽에 따르면 두 가지라 한다. 위정자에게 稼穡의 어려움을 알게 하고 천하대본인 농업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과, 농사에 종사하는 백성에게 농사의 때를 알게 하여 적기에 농경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의 행사가 지방에 파급되어 향토색 짙은 민속으로 고착되면서 농경을 위한 주술행사와 習合되는 식의 변화를 겪었다.[22]

미암은 유배지 종성에서 이러한 입춘나경의 풍속이 오랜 관습에 의해 행해져온 것을 목도하고, 백성들의 추위와 삶을 걱정하여 풍속을 교정하는 데 힘써줄 수 있는 이에게 편지를 보내 금할 뜻을 전한 것이다.

미암이 귀양 간 북방 지역이 얼마나 추웠는지는, 해배 후 미암의 부인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미암의 부인 송덕봉이 1560년 종성에 귀양 가 있던 남편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이때 마천령을 넘으면서 살갗에 바람을 맞아 식은땀이 물 흐르듯 하였는데, 이후 미암이 해배되어 돌아온 뒤에도 덕봉의 병은 낫지 않아 온갖 약을 먹고 뜸을 뜨는 등 고생을 하였다[23]는 기록이 전한다. 이토록 추운 지역에서 입춘에 발가벗

22) 황패강, 「<立春裸耕議>素考-미암일기초 연구(3)」, 『국문학논집』제3집, 단국대 국어국문학, 1969, pp.41~44

23) 『미암일기초』, 제8책, 1573 계유년, 11.18, 夫人自庚申年赴鍾城 受風( )理 冷汗如流 自辛未年七月 始服豨簽丸 服之二年 風汗稍減 至弟三年 今秋快差 自丁卯年 針灸臍下 而不臍上之後 脾胃痞滿 不思飮食 尤不能啜羹 自今年九月望日 始服

www.kci.go.kr

고 경작하는 풍속을 치르는 백성을 본 미암이, 그 지역을 벗어났어도 근심을 놓지 않고 금할 뜻을 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2) 국가의 대응과 해석

(1) 儀禮와 制度的 대응

미암이 살았던 16세기 중반 당시 조정에서는 날씨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안 좋은 날씨가 거듭될 경우는 상소를 하였고, 그것이 정사에 반영되었다. 그리하여 선조도 날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치를 취하곤 하였다.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내 비를 빌었던 일은 이미 고대부터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많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실록에서 기우제를 드린 기록을 종종 찾아 볼 수 있으며, 성현의 『용재총화』에 기우제에 관한 방법과 순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24] 또한 『祈雨祭謄錄』에는 인조 14년부터 고종 25년까지 氣候儀禮에 관한 논의와 실상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25]

『미암일기』에는 기우제나 기청제 등 기후의례를 직접 행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관련 기록은 있다. 날씨 변화가 심했던 1569년 6월에 비가 부족해 禮曹에서 祈雨祭를 지낼 것을 청하였고[26] 다음 달 閏6월과 7월

平胃元 經二十日 漸覺脾胃平而思食 此二病 皆瘳於今年 何慶如之

24)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한국 기후의 문화 역사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pp.55~57

25)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서울대 출판부, 2007, p.17. 기후의례의 중심은 이상 강우(강설)에 대비한 水旱祭, 곧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 등이며, 이는 조선시대 의례분류상, 재앙과 같은 자연조건이나 국가대사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대면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거행하는 祈告儀禮의 범주에 속하며, 내용적으로 재앙의 현실을 의례적으로 초극하려 한다는 점에서 祈禳儀禮에 해당한다. p.16 참조.

26) 『미암일기초』, 제3책, 1569 기사년, 6.4, 禮曹請以初八日祈雨 上從之

www.kci.go.kr

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예조에서 祈請祭를 올리자[27]고 기록한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비로 인한 기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때에 조정에서는 백성의 삶을 고려하여 기우제나 기청제를 올리는 儀禮를 행하여 이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비가 부족하거나 많을 때 기우제나 기청제와 같은 儀禮를 치르는 것 외에, 여러 재해로 인해 흉년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임시로 제도를 변경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1568(무진)년 9월 당시는 풍수의 害와 가뭄과 황충의 여러 재앙 끝이라 때가 어려운 데다 명나라 사신이 여섯이나 되어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였다.[28] 이에 삼공이 軍籍을 정지할 것을 의론하였으나 의견이 엇갈렸는데[29] 다음날 夕講에서 이황이 군적을 잠시 정지할 것을 계하여 선조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이 이루어졌다.[30] 미암도 군적을 정지할 것을 諫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헌납인 최정에게 통보한 바 있는데, 그 이유를 民生이 소요하는 데서 들었다.[31]

또 1570(경오)년에도 흉년과 기근에 닥쳐, 미암은 대신들에게 물어서 백성의 구제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을 건의한 기록이 보인다. 기근으로 발생한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구제하는 것이 급함을 강조하고, 공경대신뿐만 아니라 팔도 감사에게 조치를 강구하고 대신에게 속히 물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32] 그리고 이어서 옛사람의 말을 빌어 '사치의 해가 천

27) 『미암일기초』, 제3책, 1569 기사년, 7.5, 禮曺啓請來初七日祈請

28) 『미암일기초』, 제2책, 1568 무진년, 9.3, 此軍籍之擧 當此六天使風水旱蝗諸災之餘 時屈擧贏 衆皆愁悶

29) 『미암일기초』, 제2책, 1568 무진년, 9.2, 三公議軍籍 領左相以爲當停 右相牢執 上命仍行

30) 『미암일기초』, 제2책, 1568 무진년, 9.3, 今日夕講 李判府事滉入侍 啓請軍籍姑停 上嘉納之

31) 『미암일기초』, 제2책, 1568 무진년, 9.2, 余以民生騷擾 當諫之意 通于獻納崔頲

32) 『미암일기초』, 제5책, 1570 경오년, 10.9, 又言及伸削事 臣復啓曰 民惟邦本 本固邦

www.kci.go.kr

재보다 심하다.'고 하며, 여항간에서 사치를 다투어 숭상하는 폐단을 지적하고, 특히 부녀자의 머리 장식에 가발이 많이 들어간 것을 무익하다고 비판하였다.[33]

그러나 날씨 조건이 농사와 관련하여서나 백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면, 조정에서 날씨 변화에 따라 그대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조정에서 경연을 시행할 때 어쩔 수 없이 날씨에 따라 변동한 사실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다. 먼저 날씨로 인해 경연이 정지된 경우이다.

> 본관 입번원이 편간으로 동료에게 公事를 의논하여, 삼공과 영사는 날씨가 점차 추워지니 조강을 없애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을 보아 주강 석강을 하자고 청했으나, 상께서 오랫동안 대신을 접하지 못하시게 되어 미안하므로 의논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주강에 영사를 인접하시는 것이 또한 무방하다고 여긴다고 알렸다.[34]

> 관리가 영사의 뜻을 보고하였다. 요즈음 겨울철이 이미 깊어 날씨가 가장 춥고 매우니 상께서 새벽 일찍이 거동하시오 조강에 나오시면 아마도 성체가 상할까 염려되니 잠시 조강을 정지하고, 만일 온화한 날이라면 정원이 때를 헤아려 청을 올려 간간이 조강을 하고 주강과 석강은 항상 할 것을 청

寧 今年饑饉太甚 盜賊熾發 救荒弭盜 在所當急 不但廣詢博訪於公卿朝臣 講求措置 八道監司處 痛切下諭 察其守令勤慢 雖不卽啓聞 持久按驗 提撕警覺 另加勸懲 可也 方今民事甚艱 救民之策 不可緩也 況守令以不得署經 不赴任者幾至二十餘員 未得趁捧還上 生民極爲可慮 請速問于大臣 以措救民之策

33) 『미암일기초』, 제5책, 1570 경오년, 10.9, 又陳曰 古人云 奢侈之害 甚於天災 今者閭閻間爭尙奢侈 其弊已極 可減之事減之 亦救民之一策 婦女首飾 多入髮髻 此亦無益之一弊 上曰 此言是矣 此二事 皆依所啓 爲公事可也 辛未春 以湖南方伯不參講席

34) 『미암일기초』, 제1책, 1567 정묘년, 11.12, 本官入番員 以片簡議公事于同僚 以三公領事 爲日候漸寒 請除朝講 觀日候之溫 爲晝夕講 故以上久接大臣爲未安而議之余以爲 晝講 引接領事 亦無妨 報之

www.kci.go.kr

하였다. 또 불시에 소대하여 자주 유신이 조용히 강론하는 것을 접하시면 학문에 유익함이 있을 뿐 아니라 성체를 보양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마땅하게 될 것이라 계를 하였더니 윤허하였다 한다.[35]

위의 예문 중 첫 번째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린 선조가 아침 일찍 朝講을 하는 것이 무리가 된다고 판단한 삼공과 영사 등이 조강을 없애고 주강과 석강을 하도록 청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럴 경우 선조가 대신들을 오랫동안 접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의논하자, 미암은 주강 때에 영사를 불러 접하게 하는 방안을 내어놓았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은 사흘 뒤 영사의 뜻이 전달되었는데 조강을 정지하는 것이 윤허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조강을 잠시 정지하고 주강과 석강을 항상 하되, 온화한 날은 가끔이라도 조강을 하고 불시에 소대해서 유신의 강론을 자주 접하게 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올린 결과이다.

이처럼 당시 날씨로 인해 조강이 폐해진 사례는 종종 볼 수 있다. 경연은 대개 國忌日이나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쉬지 않고 행해졌으나,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잠시 조강을 제외하였던 것이다. 실록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흔히 보인다. 이는 특히 추웠던 해에 더욱 많이 나타난다. 경연에서 조강이 정지되는 것은 그때그때 날씨의 형편을 보아서 이루어진 것이지, 연중 계획에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관례화되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국가 행사에서 날씨 변화에 따라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기록과, 그때 미암의 감회 표현도 볼 수 있다. 다음의 1568년 2월 기록은 명 사신

35) 『미암일기초』, 제1책, 1567 정묘년, 11.15, 官吏報領事意. 今者冬候已深 日候最爲寒烈 自上凌晨早動 出御朝講 恐傷聖體 請姑停朝講 若値溫和之日 令政院量時啓請 間間爲朝講 而常爲晝夕講 又有不時召對 頻接儒臣 從容講論 則不惟有益於學問 其在輔養聖躬之道 亦爲當然 故敢啓 依允

www.kci.go.kr

을 맞아 조칙을 받드는 일과 같이 중대한 국가 행사에서, 비가 오는 데 따른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지난밤 승지가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루만 더 머물러 날이 개기를 기다려 오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이미 벽제에서부터 출발해 오고 있어 고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중략) 비가 삼대같이 내리자 다시 물러났는데 천사가 未時와 申時 사이에 영조문에 이르니 坤時(오후 두 시 반부터 세 시 반)에 백관이 모두 雨具를 가지고 조칙을 맞았다. 근정전 뜰도 축축하였다. 신시에 조칙을 반포하자 비가 곧 그치니 기쁨이 얼마나 크랴.[36]

명 사신을 맞는 국가 행사에서 날씨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뻔 했던 기록이다. 위는 전날 저물어서 비가 오자 다음날 명사신이 들어오는 일에 大小 관료가 걱정을 많이 했다[37]는 기록과 함께 이어지는 다음날의 기록이다. 앞에서는 전날 저녁 비가 오자, 명 사신이 머무는 곳에 승지를 보내 다음날 행사를 연기하려 하였으나 이미 출발해 오고 있어 이루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비가 삼대같이 오는 가운데 雨具를 가지고 근정전 뜰에서 천사를 맞으며 조칙을 반포하는 일련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도중에 비가 그쳐 기뻐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빗줄기가 삼대 같다(雨脚如麻)"고 한 비유적 표현이나, 행사 장소에 대해 "근정전도 축축하였다(殿亦濕)"고 하는 묘사 등에서는 비와 관련한 정황이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36) 『미암일기초』, 제1책, 1568 무진년, 2.27, 去夜 承旨馳詣天使之行 欲令留一日待晴而來 天使旣自碧蹄發來 故不敢白而還 (중략) 雨脚如麻 更退 天使到迎詔門 時刻于未申間坤時 百官皆以雨具 迎詔勅至勤政殿 殿亦濕 及申時 頒詔勅也 雨卽止 輿悅何極 (하략)

37) 『미암일기초』, 제1책, 1568 무진년, 2.26, 時日 暮雨 以天使明日入來 大小多慮

www.kci.go.kr

(2) 天人感應에 따른 해석과 표현

당시 날씨에 대한 인식은 성리학에서 이해한 '天人感應'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리학자들은『中庸』에서 "나라가 번영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고, 나라가 쇠망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불길한 조짐이 나타난다(國家將興 必有貞祥 國家將亡 必有妖孼)." 고 한 언급을 존중하였다. 장재는 '天心'은 바로 '民心'이라는 관점에서 천인감응을 해석하고 민심의 소재는 '理'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감응을 민심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지배계습의 행동이 민중의 환영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늘이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善應이 되지만, 민중의 반대에 부딪치면 그것은 惡應이 되는 것이라 여겼다.[38]

『미암일기』에는 이러한 '天人感應'의 해석에 따라 조정에서 행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1569년 삼공이 뇌성이 진동한 변을 이유로 사면을 청하고, 백홍이 태양을 꿰뚫은 변이 있자 임금이 正殿을 피하고 減膳을 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39] 날씨의 변화는 임금 덕의 문제라 여겨졌던 것이다. 또 임금이 행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날씨가 안 좋다가 좋아지면, 하늘이 돕는다고 칭송하기도 하였다. 선조가 경복궁으로 공의왕대비전에 문안을 드리려고 行幸하기 전날에 비가 밤새 내려 안타까워하였는데 새벽에 비가 그치고 아침에는 개었을 때, 성상의 출입은 하늘도 도우신다고 한 것이 그 예이다.[40]

'天人感應'에 의한 해석은 미암이 해배되던 1567(정묘)년에도 직접적

38) 馮禹,『동양의 자연과 인간 이해』(김갑수 역), 논형, 2008, pp.82~85

39)『미암일기초』, 제3책, 1569 기사년, 9.5, 三公 以雷動災變辭免 上答曰 推咎台衡 以應災變 吾誰欺 欺天乎 漢君以罷相 塞天譴 君子譏之 卿等獨不聞乎 宜勿辭 / 같은 해, 10.21, 是日 京中有白虹貫日 上避正殿 減膳

40)『미암일기초』, 제3책, 1569 기사년, 8.29, 以今日行幸景福宮 問安于恭懿王大妃殿 而徹夜雨雨 輿情感悶 適向曉雨止 / 같은 날, 去夜雨 而今朝霽 聖上出入 天亦相之

www.kci.go.kr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조 즉위년인 1567년 10월, 당시 있었던 우레의 變을 말미암아 삼공이 待罪를 하자 선조가 下敎하여 “賢士로서 침체된 사람을 수용하고 무고하게 죄를 입은 사람은 원통함을 풀어주라.” 고 한 것이다. 이로써 을사년에 유배 갔던 인물들 즉 노수신, 김난상 등을 맨 먼저 수용하자는 논의가 일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노수신, 미암, 김난상이 방면되고 경연관으로 차출되었다.[41] 또 미암은 그즈음 홍문관 수찬 구변의 편지를 보고, “정미년에 죄를 입은 사람들이 이번 天變으로 말미암아 선조로부터 특별히 서용될 것을 명받았다”[42]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미암이 을사사화로 인해 유배에서 풀려나 등용되기 전까지의 과정에는 당시 우레의 變이라는 天變, 곧 날씨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기록에서도 날씨의 변화를 천인감응에 의해 해석, 풀이한 예를 볼 수 있다.

> 흐리고 비. 이날 호남과 여러 도에 비가 두루 충분히 왔다는 소식이 모두 왔다. 오늘의 비는 편안하고 서서히 적셔주어 씨를 내리기에 족하니 진실로 ‘때에 알맞은 비(時雨)’라고 이를 만하다. 금년에 원통하고 억울함이 이미 다 풀리고 씻겼으니, 화기가 풍년에 이르는 것은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43]

41) 『미암일기초』, 제1책, 1567 정묘년, 10.14, 因朴生之去 遺許承旨書曰 希春伏聞太陽照於覆盆之下 九原亦添漏泉之澤 存沒感幸 天下所無 雖公文未來 不勝感泣云云 (중략)日昳 吏曹下典 持十二日上敎云 柳希春, 盧守愼, 金鸞祥放送 職牒還給 經筵官差出 韓澍, 李震, 尹剛元, 李燭, 朴民獻, 李龜壽, 金汝孚, 李銘, 金鎭, 金虯, 李元祿, 柳堪 已上敍用 崔堣, 金弘度放送 尹杲, 林復敍用事下敎云云 金宰遣其子洽來賀

42) 『미암일기초』, 제1책, 1567 정묘년, 10.12, 弘文修撰具扑書云 丁未年被罪人等 今因天變 自上特命收敍 一國之慶 何加於此 歡抃罔極 二十年冤枉之極 今蒙昭雪之恩 慈殿之明聖 眞可謂女中之堯舜也云云

43) 『미암일기초』, 제1책, 1568 무진년, 3.16, 陰雨 是時 湖南及諸道雨澤周足之報皆來

www.kci.go.kr

앞에서는 파종기에 때마침 단비가 내려 실로 時雨라고 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날씨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는 금년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 곧 을사사화로 피화된 인물이 풀려나 화한 기운이 풍년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며 날씨의 변화를 국가적인 정세와 관련지어 해석하고 이것이 다시 농사의 길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렇듯 날씨는 일차적으로 농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해석되었고, 국가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게 해석되며 그것이 다시 농업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선조 4년, 조정에서 정치적으로 을사사화에 대한 정리가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 미암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며, 그때의 소회를 기상의 변화에 비유하여 나타냈다.

> 士林의 화는 丁酉年에 서리를 밟았고, 乙巳年에 얼음이 얼었으며, 얼어붙기를 이 십 여년이었다. 乙丑年에 이르러 비로소 점차 움직여 丁卯年에 이르러서야 녹았다. 庚午年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다만 옛 흔적으로 위훈이 아직도 삭제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한 점의 응달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44)

을사사화로 인해 이십 년을 유배로 보낸 미암은 그 전후로 겪은 사정을 얼음이 얼었다 풀리는 과정에 비유하여 회고하였다. 윤원형 등의 횡포가 시작된 1537년 정유년에 서리를 밟고 1545년 을사사화에 얼음이 얼어, 1565년 을축년에 문정왕후가 죽고 을사사림들이 신설되면서 얼음이 녹으

(중략) 今日之雨 安徐滋潤 可以付種 眞所謂時雨也 今年 冤抑旣盡申雪 和氣致豐 不亦宜乎

44) 『미암일기초』, 제6책, 1571 신미년, 1.7, 士林之禍 履霜於丁酉 凝氷於乙巳 爲凌爲凍者 二十餘年 至乙丑而始漸 至丁卯而乃泮 至庚午而消 舊痕只有僞勳尙未削爲陰崖之一點云

www.kci.go.kr

려고 움직이다가 1567년 정묘년에 선조가 즉위하면서 유배되었던 사림들을 대거 해배시키고 등용한 것을 얼음이 녹는 듯 을사년의 화가 풀려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을사년에 공훈을 받은 이들의 僞勳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응달의 한 점으로 남아 있다고 비유하였다. 미암의 마음에서도 그늘진 채, 풀리지 않은 오점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미암이 날씨를 천인감응에 의해 해석하고 그에 따라 표현한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미암은 반드시 천인감응에 의해 날씨를 해석하지만은 않았고, 순수하게 날씨를 그대로 써서 표현한 경우도 있다. 해배 후 을사사화로 유배를 겪고 조정에 돌아온 자신의 신세를 다음과 같이 술회한 예가 그것이다.

> 내가 乙巳年에서 甲子年까지 이십 년간, 이 몸이 안개비 어둑어둑한 가운데 있었고, 乙丑年과 丙寅年에야 별과 달의 조금 작은 빛을 얼핏 보았다. 丁卯年 시월에야 해가 다시 환하게 밝은 것을 상쾌하게 바라보게 되었다.[45]

지난 세월과 미암이 겪은 일들을 떠올리며 그때의 상황을 날씨에 비하여 표현하였다. 을사사화가 시작된 해부터 갑자년(1564)까지 꼭 20년의 상황은 사화에 얽혀 안개비를 맞고 있는 때로, 을축년(1565)에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형이 실각하면서 미암이 유배지 종성에서 은진으로 이배되던 때를 星月의 작은 빛을 본 것으로 표현하고, 정묘년(1567)에 완전히 해배되면서 天日을 거듭 밝게 보았다며 상쾌한 기분을 나타내었다.

그렇다면 기후와 관련한 과학인 천문학에 대해 미암은 실제로 어느 정

45) 『미암일기초』, 제4책, 1570 경오년, 4.25, 余自乙巳至甲子 二十年間 此身在霧雨晦冥之中 乙丑丙寅稍見星月之小明 至丁卯十月 快睹天日之重明

www.kci.go.kr

도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까. 당시의 기상 이변과 관련하여, 미암은 '천문은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선조가 미암에게 彗星의 일을 물어보자 미암이 天文은 모른다고 답한 것이다. 선조는 그래도 해박한 사람이 대충이라도 모르겠냐[46]고 하였다.

책에 욕심이 많았던 미암은 천문에 관한 책도 읽고 관심을 가졌으리라 여겨진다. 실제로 1571년 관상감에서 『천문도』를 진상하자, 政院에서 『천문도』가 30여건이 남아 있으므로 문신 2품 이상 51명 가운데 30점만을 낙점하기를 啓하였는데 미암이 여기에 들어 매우 다행스러워 하였다[47]는 기록이 있다.

또한 미암은 가뭄과 홍수가 잦던 무진년 6월과 7월 사이에 太白이 자주 나타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표하였고[48], 선조의 비망기를 보면서도 태백의 징조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았다.[49] 태백은 太白星으로 금성을 일컫는 말이다. 천문을 관찰하며 기상 변화와 그 조짐에 대해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태백을 처음 본 다음날 "새벽에 비가 뿌리더니 아침에 그쳤다. 기쁜 비가 흡족하지 못한 것이 한이다."[50]고 기록하여 당시 농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얼마 후 호남에서 전에 없던 큰 비가 내린 일을 기록하였다.[51] 이런 기록을 통해 미암이 천문에 대해서도 관심

---

46) 『미암일기초』, 제10책, 1576 병자년, 9.9, 上問彗星事 卿知否 臣對曰 臣不曉天文 上曰 該博之人 豈不知大槩

47) 『미암일기초』, 제6책, 1571 신미년, 10.19, 觀象監 天文圖一百二十軸進上 政院啓曰 天文圖餘數三十件 而文臣二品已上 五十一員 而其中三十員落點 傳曰知道 凡頒賜三公以下 而希春亦得受點 幸亦可稱

48) 『미암일기초』, 제3책, 1569 기사년, 6.4, 是時 太白屢見 不知何兆 / 6.5, 未時 太白與日月竝行 人皆見之 / 6.6, 是日 太白經天 憂慮罔措 / 6.7, 未時 太白見於牛地經天

49) 『미암일기초』, 제3책, 1569 기사년, 6.8, 備忘記曰 自頃以來 太白晝見 乃於今日 以至經天 此實非常之變 而經天尤變之大者也 不勝驚懼之至

50) 『미암일기초』, 제3책, 1569 기사년, 6.5, 晨 驟雨至朝而止 恨喜雨之未洽也

www.kci.go.kr

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문에 대해 미암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도서를 읽으며 공부를 하였으나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조에게도 자신이 겪은 바를 토대로 아뢰는 정도에 그쳤다. 미암이 19세에 회시를 보기 위해 서울에 왔는데 그때 혜성이 자주 나타났지만, 국가에는 큰 일이 없었고, 다만 김안로가 들어와 일을 어렵게 뜯어 고쳤다[52]고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미암은 혜성과 같은 천문의 변화나 재앙보다는 人災가 더 무서운 일임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선조는 계속해서 별의 도가 몇 리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미암이 모른다고 하고 단지 옛 사람의 말을 인용해 "하늘에 度가 있는 것이 땅에 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했으나 1도가 몇 리인지 모릅니다." 하고, 楚詞의 天問에 註한 주자의 말로 "周天이 1백 7만 리"라고 답하였다. 또 선조는 皇道와 赤道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미암은 이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曆家가 표시를 한 것이라고 답하였다.[53]

이러한 미암과 선조의 문답을 통해, 16세기 중반 당대에 과학적인 천문학적 사고가 발달한 면모를 찾아보기는 어렵고 주자의 인문학적인 사고에 바탕 해 인식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

51) 『미암일기초』, 제3책, 1569 기사년, 閏6.17, 聞 湖南 自六月初一日大雨 一月內二十日大水 (중략)實前古所未有也

52) 『미암일기초』, 제10책, 1576 병자년, 9.9, 對曰 臣年十九辛卯歲 以觀會試上京 其時彗星屢見 國家別無大故 但金安老入來 紛更諸事爾

53) 『미암일기초』, 제10책, 1576 병자년, 9.9, 上問星之度 於地爲幾里 對曰 未之知也 古人云 天之有度 猶地之有里 但不知一度爲幾里爾 楚詞天問註 朱子云 以周天赤道觀之 周天一百七萬里云云 上曰 黃道赤道之說 如何 對曰 此曆家所以標識非眞有黃赤二道也

www.kci.go.kr

3. 의의와 결론

요즘처럼 기상 이변이 극심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때에, 기상 변화의 요인과 징후는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옛 선인들은 기상 변화에 어떠한 관심을 표명하며 기록을 남겼을까 살펴보는 것도 그 관심의 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16세기 중반 방대한 양의 일기를 남긴 유희춘의 『미암일기』에 나타난 날씨 기록과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 곧 1551년부터 1650년은 다른 기간에 비해 한랭한 시기로, 소빙하기에 해당한다.[54] 1567년부터 1577년까지 10년간의 기록인 『미암일기』는 이러한 한국의 소빙하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날씨를 잘 반영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날씨와 관련하여 백성의 삶, 곧 그들의 의식주 생활과 농업, 풍속에까지 깊이 간여하며 날씨에 따른 변화상에 주목한 미암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미암은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흉년이나 가뭄이 생길 경우에는 많은 근심을 표현하였고, 백성들의 무지로 인해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종성 지역의 立春裸耕과 같은 풍속에 대해서는 해배 후에도 계속해서 비판하며 고쳐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조정에서 날씨 변화에 따라 대응한 방식에 대해서도 기록하여, 기우제나 기청제 등의 기후의례를 치르거나, 군적을 정지하고 백성의 구제책을 도모하는 등 제도적으로

54) 권원태 외, 『한국의 기후』, 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pp.321~323. 한국의 소빙하기(Little Ice Age)는 현재부터 500-100년 전에 일어났던 전지구의 한랭 현상으로, 여름 온도가 오늘날보다 서늘한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위에서 든 시기 외에도 1701-1750년 사이의 한 시기가 더 있다. 이에 반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온난화 현상은 1860년 이후 전지구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www.kci.go.kr

대응하는 경우 민생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여 민감하고 조속하게 반응하며 대처한 양상을 세심하게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암은 경연이나 명 사신을 맞는 일 등에서도 날씨에 따라 대응한 일화를 기록하였는데, 그때는 날씨에 대한 정황과 감회를 감각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한 면모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미암의 날씨 기록에서 보이는 날씨 해석의 관점은 16세기 중반 당시 천문학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를 반영한 天人感應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날씨는 일기에서 형식적으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요소이지만, 미암은 일기에 매일의 날씨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민생에 대한 걱정은 물론, 당시 조정에서 활동하며 농업과 時事와 관련하여 기록하고 자신의 지난 삶마저 날씨의 변화로 표현하였다. 날씨는 사람의 피부에 가장 가깝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기를 기록하는 이에게도 그와 관련한 일을 적어가는 것이 무척 자연스럽고도 친밀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암은 일기에 그날의 날씨 기록을 일기의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마치 날짜를 적는 것과 같이 한 번 적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미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깊이 관여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날씨에 대한 의식을 일기 기록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로써 '일기'라는 기록문학에서 날씨 기록과 표현을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 문학이 愛民意識을 드러내고 한편으로 자신의 감회를 표출한 또 다른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미암일기』가 조선 전기 대표적인 官人日記로서 公日記의 성격을 지니면서, 이후 조선 후기에 많이 나오는 私日記의 성격을 공유하는 16세기 중반 일기문학으로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55] 조선 후기에야 한문산문 일기에서 기록자가 심리 상

55) 이에 대해서는 졸고, 『미암 유희춘의 일기문학 연구』(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9)를 참고.

www.kci.go.kr

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진정한 자의식을 담게 되는데[56], 이러한 본격적인 사일기가 나타나기 이전 『미암일기』에서 미암의 날씨 기록을 통해 감정 표출을 미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암일기』의 날씨 기록과 표현에서 보이는, 16세기 중반 일기문학으로서의 특성과 의의는 전후 시대 일기문학, 그리고 다른 기록문학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나 본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추후로 미룬다.

참고문헌

유희춘, 『眉巖集』, 한국문집총간 34권, 민족문화추진회, 1989

_____, 『眉巖日記草』1~5권, 조선총독부 한국사편수회, 1936.

_____, 국역 『미암일기』1~5집, 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2~1996.

권원태 외, 『한국의 기후』, 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pp.1~417.

김연옥, 「古日記에 의한 古氣候 연구-『미암일기』를 중심으로」, 『논총』 제5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90, pp.1-13.

_____, 『한국의 기후와 문화-한국 기후의 문화 역사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pp.1-13.

_____, 『기후 변화』, 민음사, 1998, pp.1-408.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6, pp.1-329.

_____, 「『미암일기』의 서지와 사료적 가치」, 『퇴계학연구』제12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8, pp.117-151.

심경호, 「기록문학으로서의 한문산문-한문산문의 기록성과 국문문학」, 『한문산문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1, pp.1-341.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일기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1-183.

56) 심경호, 「기록문학으로서의 한문산문-한문산문의 기록성과 국문문학」, 『한문산문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1, p.177.

www.kci.go.kr

최종성, 『祈雨祭謄錄과 氣候儀禮』, 서울대 출판부, 2007, pp.1-168.
馮禹, 『동양의 자연과 인간 이해』, 김갑수 역, 논형, 2008, pp.1-356.
황패강, 「<立春裸耕議>素考-미암일기초 연구(3)」, 『국문학논집』제3집, 단국대 국어국문학, 1969, pp.39~49.

www.kci.go.kr

ABSTRACT

The Record and Expression of the Weather in-the mid 16C in Mi-Am ilgi(眉巖日記)

Lee, Yeon-soon

This paper was made an attempt to clarify the feature and significance of the weather record and expression ln-the mid 16C through Mi-Am ilgi (眉巖日記).

The weather is a formality element in journal. However, Mi-Am did not regard weather as a formality element, but also had concern the people, politcts and the life of his own associated with weather. And he recorded the change of weather in journal.

Thus his record have a significance in the way that he realized the weather influence all sorts of things phenomena and expressed his feelings in journal.

Key Words Mi-Am ilgi (眉巖日記), Yu Hi-Chun(柳希春), weather,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a ritual for rain

논문투고일 : 2010. 3. 31
심사완료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14

www.kci.go.kr